



3면

이3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개문발차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2년 12월 20일 화요일 (음 11월 27일) 제3165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사전·사후 제설작업 집중해달라”

지난 주말 도내 곳곳 내린 강설 따라... 김관영 도지사, 전북도로관리사업소 찾아 대응 상황 점검

김관영 도지사는 19일, 전북 전역에 내린 강설로 인해 지방도, 위임국도 제설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전북도로관리사업소를 방문해 제설작업을 현장 지휘하고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15일부터 18일 까지 경제, 문화 협력을 위한 일본 출장 중에도 전북 전역에 많은 눈이 내리고 기온 하강에 따른 피해 및 대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고, 비닐하우스 등 농축수산 시설물 피해 최소화 및 결빙 취약구간 등에 대한 사전·사후 제설작업에 집중해달라는 특별 지시사항을 내렸다.



19일 원주군 상관면 전북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를 방문한 김관영 도지사가 제설작업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대설·한파에 총력을 다해 대응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또 지난 18일 저녁 귀국한 후 곧장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해 대설특보에 따른 운영 결과를 보고 받고, 오늘 새벽부터 서부지역 중심으로 최대 15cm의 추가 강설 예보에 따라 19일 출근 시간 이전 주요 간선도로 등 제설작업을 신속히 실시해 도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이 함께 선제적으로 과할 정도로 과감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연속으로 밤샘 제설작업으로 고생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제설작업 중인 현장에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급경사지, 급커브 등 결빙취약구간에 대한 제설제, 장비 및 인력을 총동원해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 불편이 없도록 사후 제설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낙상사고 등 인명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토록 지시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강설이 이어짐에 따라 인명피해 및 시설하우스, 노후주택 붕괴 등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거듭 강조하고 “도민들께서는 도로 결빙으로 인해 외출을 삼가고, 폭설시 내집 앞 눈치우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도민 행동요령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18일 오후 10시 35분 군산 등 4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그 시간 이후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번 대설이 오는 24일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도실국 및 시군과 함께 긴장감을 갖고 재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내일 '지역민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음악으로 따뜻한 동행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대공연장서... 전석 무료
1부, 본교 한국음악학과 국악관현악·사물놀이
2부, 전문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무대 수 놓아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21일 오후 7시 삼성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지역민을 위한 송년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음악회는 전북대 개교 75주년을 기념하고, 지역민과 음악으로 따뜻하게 동행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공연은 국악과 오케스트라 등 동서양의 음악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



먼저, 1부는 전북대 한국음악학과가 국악관현악과 사물놀이가 무대를 수놓는다. 오랜 세월 전북대 한국음악학과에서 한국음악의 미래 동향을 양성해 온 조봉달 명창을 비롯해 춘향국악대전 대통령상 수상자인 김지수 명창 그리고 사물광대가 협연한다. 또 국악관현악 남도아리랑과 창과 관현악이 어우러진 '쑥대머리', '세상경제', 그리고 사물놀이 협주곡인 '심모듬 3악장'이 무대를 장식한다.

윤석의 하모니카 협주곡 '블레드'를 비롯해 '소스타코비치 왈츠 No.2', '라데츠키 행진곡' 등이 무대를 연출할 예정이다.

2부는 전문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서양음악의 진수가 펼쳐진다.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대상 수상자인 소프라노 양두름과 서울대 작곡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한 하모니시스트 이윤석이 협연자로 나선다. 양두름의 '그리운 금강산'과 이

김동원 총장은 “임인년 한 해, 어려움 속에서도 뜨겁게 살아온 모든 분들께 큰 박수를 보내며, 지역민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모두가 함께하는 송년음악회를 마련했다”며 “캠퍼스의 낭만과 더불어 아름다운 선율을 만날 수 있는 이번 공연을 통해 지역과 대학이 음악으로 따뜻하게 동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된다. 공연 시작 전 삼성문화회관 로비 안내 데스크에서 공연 좌석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올 한해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입증됐다

전북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 '입증'

행안부 지역안전지수 '범죄 분야' 세종시와 함께 '1등급' 모든 분야에서 하위등급 없어...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 유일

광역지자체 대비 비교적 양호한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범죄 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전북도와 세종시만이 1등급을 기록했고,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역안전지수 모든 분야에서 하위등급(4~5등급)이 없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임이 입증됐다.

또한 장수군은 화재 분야 '지역안전지수' 등급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장수군은 소방서와 합동으로 이영장 화재예방 안전점검,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실시, 전통시장의 맞춤형 예방 활동으로 화재 발생건수를 전년 대비 대폭 감소했다. /김재훈 기자

김인태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지역안전지수를 상세히 분석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와 지역은 집중적으로 관리·지원해 지역 간 안전 격차를 해소하고 전북 모든 도민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 지역안전지수 범죄 분야에서 지난해보다 상승한 1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여하는 '지역 안전수준 개선 분야'에서 기관 표창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 화재, 범

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별 전국 지자체의 안전 수준을 계량화한 지역안전지수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도는 범죄 분야 1등급을 비롯해 나머지 분야에서 3등급으로 전국 17개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의회 전라북도의회

행복으로 가는
자치전북

전라북도의회는 2023년 새해에도
도민의 든든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